'줄부상·피로 누적' 호랑이, 힘겨운 '5할 승률'

KIA타이거즈 주간전망

주장 김선빈 오른쪽 엄지 골절
20~22일 한화·23~25일 KT전
최원준·김규성 등 활약 절실
김도영·나성범 퓨처스 출전할 듯

다시 무너진 5할 승률을 3주 째 뒤집지 못한 KIA타이거즈에 또 악재가 닥쳤다. 주장이자 주전 2루수로 활약한 김선빈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빠지면서 젊은 피들의 활약과 부상자들의 조기 복귀가 절실한 상황이다.

KIA는 20일부터 한화이글스와 원정 주중 3연전, 23일부터 KT위즈와 홈 주말 3연전을 치른다. 지난 18일까지 59경기를 치른 KIA는 27승 1무 31패(승률 0.466)로 6위에 머물러있다.

2023 KBO리그 순위 (19일 현재)

순위	구단	게임	승	패	무	승률	승차
1	LG	65	39	24	2	0.619	-
2	SSG	63	38	24	1	0.613	0.5
3	NC	61	34	26	1	0.567	3.5
4	롯데	60	32	28	0	0.533	5.5
5	두산	61	30	30	1	0.500	7.5
6	KIA	59	27	31	1	0.466	9.5
7	키움	66	29	35	2	0.453	10.5
8	KT	62	26	34	2	0.433	11.5
9	삼성	62	26	36	0	0.419	12.5
10	한화	63	23	36	4	0.390	14

지난주 KIA는 키움히어로즈에게 원정 주중 3연전 시작과 함께 두 경기를 내리 한 점 차 패배로 내주며 집중력 부족을 드러냈다. 마지막 경기를 가져오며 싹쓸이 패배를 면하긴 했으나 이어진 NC다이노스와 홈 주말 3연전에서 세 경기를 모두 장기전과 난타전 양상으로 가면서 피로가 누적됐다.

투수와 야수를 가리지 않고 엔트리에 있는 선수가 총동원되는 3연전을 치렀지만 1승 1무 1패로 우열을 가리지 못하며 허탈함도 안았다. KIA는 첫 경기에서 13-11 재역전승을 거뒀으나 두 번째 경기를 7-10으로 내줬고, 마지막 맞대결은 7-7로 승부를 내지 못했다.

무더워진 날씨 속에 체력 소모가 큰 데다 부상자가 발생하며 악재도 더해졌다. 이미 내야수 김도영과 외야수 나성범 두 주축 야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KIA는 지난 17일 경기 도중 김선빈이 수비하는 과정에서 강습 타구에 오른손을 맞고 통증을 호소했다.

김선빈은 즉시 구단 지정 병원으로 이동해 X선(X-ray) 촬영을 진행한 결과 우측 엄지손가락 골절 의심 소견을 받았다. 직후 엔트리에서 말소된 김선빈은 올스타 브레이크 이전 합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주가 가을야구권 복귀와 하위권 추락을 사이에 둔 고비인 만큼 김도영과 나성범의 조기 복귀가 절실해졌다. 김도영과 나성범은 20일부터 퓨처스리그 출전을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린다.

최원준과 김규성, 변우혁 등 젊은 피들의 활약도 절실하다.

상무 전역 직후 1루를 책임지고 있는 최원준이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김규성과 변우혁도 주전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김선빈이 빠진 2루에서 김규성이, 류지혁이 휴식을 취하는 3루에서 변우혁이 확실한 활약을 보여준다면 KIA 타선은 반등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1루와 3루를 모두 소화 가능한 변우혁은 6월 한 달간 홈런 1방을 포함해 타율 0.429(21타수 9안타), 3타점, 4득점으로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투수진에서는 윤중현과 김기훈의 가세가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황동하와 임기영, 김유신 등이 멀티 이닝 이상을 소화할 수 있는 자원으로 버티고 있는 가운데 KIA는 필승조와 추격조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수준급 불펜을 갖추게 됐다.

부상에서 돌아온 윤중현은 지난 18일 등록 직후 12회초 무사 1·2루 위기에서 시즌 첫 등판해 병살타와 헛스윙 삼진으로 위기를 탈출하며 여전한 위력을 과시했다. 김기훈은 지난달 26일 밸런스 조정과 자신감 회복을 위해 퓨처스리그에 내려간 뒤 윤중현과 함께 등록돼 복귀전을 기다리고 있다.

야수진에 또 하나의 구멍이 생긴 KIA가 더 강해진 투수진의 힘으로 이번 주 고비를 넘기고 다시 5할 승률 회복과 함께 가을야구권으로 도약할지 주목된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안산(왼쪽부터)과 임시현, 강채영 세계양궁연맹 제공

광주여대 안산, 양궁월드컵 3차대회서 금 과녁

여자단체전서 중국 꺾고 우승
한국 2회 연속 종합우승 쾌거

'도쿄올림픽 3관왕 스타' 안산(광주여대)이 2023 현대 양궁 월드컵 3차 대회에서 금 과녁을 명중시켰다.

안산은 19일(한국시간) 콜롬비아 메데진에서 열린 이번 대회 여자 단체전 결승전에서 강채영(현대모비스)·임시현(한국체대)과 완벽한 호흡을 맞추며 중국을 6-0(53-50 56-54 58-54)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예선 총점 합계 1위(2037점)로 토너먼트에 나선 여자대표팀은 폴란드, 일본, 미국을 연파하고 결승에 올라 중국을 대파,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월드컵 2차 대회에 이어 다시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우진(청주시청)·김제덕(예천군청)·이우석(코오롱)으로 구성된 남자 대표팀도 결승에서 대만을 6-0(55-47 59-49 59-55)으로 제압하고 2회 연속 월드컵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임시현은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멕시코의 앙헬라 루이스를 슛오프 승부 끝에 6-5(30-27 29-26 29-29 28-29 28-29 〈9-8〉)로 신승하며 2연속 여자 개인전 정상에 올랐다. 김제덕은 남자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이우석은 동메달을 각각 따냈다. 임시현·김우진은 혼성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거머쥐었다.

이번 대회에 리커브 종목만 참가한 한국 양궁대표팀은 금 3개, 은 2개, 동 1개로 종합 1위를 차지, 월드컵 2개 대회 연속 종합 우승의 쾌거를 이루며 오는 8월 파리올림픽 출전권이 걸려있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서의 전망을 밝혔다.

최동환 기자

전남 수영 꿈나무, 광주전국수영선수권서 12개 메달

전남 수영 꿈나무들이 제2회 광주전국수영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활약을 펼치며 총 12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19일 전남수영연맹에 따르면 전남 수영 꿈나무들이 지난 10~15일 광주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7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영암초 문강우(6년)가 초등부 배영 50m 결승에서 31초53초로 금메달을, 배영 100m에서 은메달을 각각 목에 걸었다.

영암초 김윤성(4년)도 유년부 접영 100m에서 1분17초12초로 금메달을, 배영 50m에서 은메달을 각각 차지했다.

영암초 김수민(6년)은 여초부 배영 100m와 200m에서 각각 1분10초58과 2분33초23초로 은메달 2개를 따냈다.

영암초 이아랑(6년)은 여초부 자유형 100m에서 1분02초37초로 은메달을, 자유형 50m에서 동메달을 각각 거머쥐었다.

영암초는 초등부 혼성혼계영 400m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장성사창초 박현종(6년)은 남초부 자유형 400m에서 4분40초96으로 금메달을, 자유형 200m에서 2분12초86으로 은메달을 각각 차지했다.

여수한려초 최하랑(6년)은 남초부 평영100m 결승에서 1분16초47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동환 기자

스페인, 네이션스리그 정상 '환호' 스페인 선수들이 19일(한국시간)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스타디온 페예노르트에서 열린 2022~23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 정상에 올라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스페인은 결승에서 크로아티아와 0-0으로 비겨 승부차기 끝에 5-4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AP/뉴시스

'막공' 펼치는 K3리그 FC목포, 강팀 거듭날 수 있을까

빠른 공격·과감한 플레이 전개
지난해 13위 → 올 전반기 2위
팀 득점 2위… 조건규 7득점 최다

조덕제 감독의 '막공(막을 수 없는 공격)'을 장착한 FC목포가 2023 K3리그 2위를 질주하고 있다. 천안시축구단(현 천안시티FC)과 청주FC(현 충북청주FC)의 프로 진출로 강등 규모가 축소되긴 했으나 지난해 16개 팀 중 13위로 승강 플레이오프에 향할 위기에서 승점 1점 차이로 간신히 탈출했던 것과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FC목포는 올 시즌을 앞두고 조덕제 감독에게 새로 지휘봉을 맡겼다. 조 감독은 수원FC와 부산아이파크 감독 시절 두 팀을 모두 1부리그로 이끌며 K리그 승격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다.

또 과감한 측면 공략과 빠른 공격 템포, 과감한 플레이 전개 등 화끈한 공격 축구인 '막공'을 구사했고, 목포 역시 올 시즌이 색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목포는 1라운드 로빈(14경기)을 마무리한 시점에서 21득점을 터트려 7승 4무 3패(승점 25)로 2위에 올라있다.

조덕제 감독

올 시즌 목포의 막공 중심에는 공격수 조건규가 있다. 리그 득점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조건규는 시즌 첫 경기였던 지난 3월18일 양주전을 멀티골을 시작으로 7골 3어시스트로 맹활약 중이다.

다른 공격 자원들 역시 발끝이 매섭다. 제갈재민이 5골 1어시스트, 박승렬과 박하빈이 1골 1어시스트로 힘을 보태고 있고 최근 부상에서 돌아온 최오백과 정민우도 경기 감각을 회복했다.

창원시청축구단과 함께 리그에서 네 번째로 적은 실점(12점)을 하고 있지만 수비진의 공격 가담과 측면 돌파도 돋보이는 요소다. 든든한 수문장 제종현과 함께 양 측면에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 박선용(1골 1어시스트)과 금교진(2어시스트)이 적극적인 오버래핑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있다.

다만 2위인 목포와 최하위(15위)인 경주한수원FC와 승차가 5경기(15점)에 불과한 상황에서 상위권 팀들의 승점 차도 촘촘한 만큼 목포는 후반기 들어서도 지금의 경기력을 잘 유지해야 한다.

특히 날씨가 더워진 시점에서 이미 부상으로 이탈한 자원들이 있는 만큼 추가 이탈자가 없도록 컨디션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27명으로 다소 얇은 선수층에서 체력 유지를 위해 선수 보강도 일부 필요한 상황이다. 또 오는 10월에는 연고지인 목포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 입상을 노리는 만큼 경기력을 잘 유지해야 한다.

조덕제 감독은 부임 당시 "올 시즌 K3리그에서 새로운 업적을 이루고 싶다"며 "올해 전국체육대회는 목포에서 열리는 만큼 반드시 시민들 앞에서 메달권에 진입하겠다"고 각오를 다진 바 있다.

한규빈 기자